

학 계 ①

酪農肉牛人의 團合을 통한 危機克服

徐箕源
農協大學 教授

1. 최근의 不況을 왜 危機라 하는가.

그동안 낙농육우산업은 몇차례에 걸친 不況이 있었다. 낙농의 경우엔 87년 上半期도 분유의 재고가 쌓여 고전한 일이 있으며, 肉牛의 경우엔 79년에 이어 83~84년에는 소값 폭락과 동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리하여 낙농육우농가는 많은 損失을 입었으며 동시에 負債가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번의 不況은 사뭇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不況은 비록 海外要因이 加勢했다하더라도 주로 國內的 要因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調整기를 거쳐 需給不均衡만 해소되면 回復期를 맞이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사육두수의 조절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만 하면 생산비나 수익성 같은 것은 크게 따져 보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불황은, 그에 대응함에 있어 수입의 조절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낙농육우산업도 이제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어쩔수 없이 國際化, 開放化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에 대비하기 위한 組織化와 政治的 기능발휘가 요구되는 한편 經營合理化와 生産性向上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生存조차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년의 불황을 깊이 분석해 보면 육우의 경우는 전적으로 쇠고기의 꾸준한 수입증가 때문에 肉牛價格이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으며, 낙농의 경우도 유장분말, 유당, 카제인·나트륨, 전지분유, 버터, 치즈 등을 중심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낙농의 경우엔 지난해에 이르러 젖소의 사육두수가 마침내 50만두를 넘어서 우유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온데다 乳代도 13%나 인상되었고 거기에 이상구신드름까지 겹쳐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불황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제품의 수입증가도 큰 要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앞으로는 특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축산물 특히 쇠고기, 유제품의 수입은急增할 것이 확실하다.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에도 미국의 通商代表가 와서 쇠고기 수입을 전면 自由化하라고 요구하였고, 유제품도 우리나라의 有名 乳製品 生産業體들이 다투어 외국에서 輸入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현재의 國際市場價格면에서 볼때 수입 축산물은 대부분 값이 싸기 때문에, 輸入량이 늘면 늘수록 우리의 酪農肉牛産業의 立志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危機인 것이다. 유제품의 경우엔 얼마 후 수급만 조정되면 다시 안정을 찾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임을 명심해야 한다. 생산보조

금, 수출보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유럽의 유제품들이 값싸게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국내 낙농업계는 불황을 맞을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런데도 우리 낙농육우인들이 안일한 자세로 자격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낙농육우인들은 단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금의 불황, 지금의 危機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

이미 알려진대로 미국은 우리에게 쇠고기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하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오고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개방압력을 집요하게 가하는 이유는, 自由化는 절대 안된다고 버티어 오던 日本조차 미국의 壓力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88년 12월에 미국과의 농산물무역확대를 위한 협상에서 쇠고기에 관한 한, 1991년 4월부터 수입을 전면 자유화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써 일본은, 과거 20%이던 쇠고기의 輸入관세를 70%로 높이는 한편 소값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사료가격의 인하와 仔牛生産을 국가가 맡아 싸게 공급함으로써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일본소(和牛)의 육질을 高級化시키기 위한 支援事業도 강화하여 品質로써 수입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여하간 일본을 굴복시킨 여세를 몰아 미국은 이제 韓國의 輸入自由化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갖가지 壓力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兩面作戰을 쓰고 있다.

하나는 미국이 韓國과 직접 협상을 벌이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무역기구인 GATT내에 설치된 국제수지위원회(BOP)에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을 상정하여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자에는 유럽각국은 물론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세하여 우리를 궁지에 몰고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설사 우리가 쇠고기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미국에 돌아갈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部位別 高級肉에 있어서는 미국이 단연 우수하기 때문에 호텔용 쇠고기 시장만은 그들이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수입자유화를 강요하는 이유는 미국농업에서 쇠고기가 政治商品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은 미국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農民團體가 많다. 그것은 <표 1>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국적으로 농민문제를 가지고 로비활동을 벌이는 일반농민단체가 5개나 되고 또 品目別로도 각종의 농민단체가 만들어져, 미국의 행정부나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은 인구대표가 아니고 地域代表이기 때문에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도 농촌지역 출신의 의원은 농민들의 支持를 받지 않고서는 의원에 당선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특히 牧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여론형성자들이다. 이들은 全國肉牛生産者協會를 만들어 3만2천명의 회원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하여 쇠고기 수출확대의 길을 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들의 본부는 덴버(Denver)시에 있지만 미국의 수도인 와싱턴에도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수시로 농림부를 출입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농산물수출시장을 들여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州 가운데 소 飼育의 비중이 큰 州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텍사스, 네부라스카, 캔사스, 코로라도,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의 6개주에 불과한 반면 畜産飼料로서의 옥수수 主産州는 그보다 훨씬 많은 38州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生産量이 1백만톤 이

<표 1> 美國의 主要農民團體

區分	農民團體名	創設年度	會員數	本部所在地
一般農民團體	美國農業聯合會(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1919	340萬名	시카고
	全國農民聯盟(National Farmers' Union)	1902	55	덴버
	그레인지(National Grange)	1867	40	워싱턴D.C
	美國農業運動(American Agricultural Movement)	1977	10	워싱턴D.C
	全國農民組織(National Farmers' Organization)	1955	4	덴버
品目別農民團體	美國大豆協會(American Soybean Association)	1920	3	세인트루이스
	全國옥수수生産者協會(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1959	1.4	세인트루이스
	全國小麥生産者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Wheat Growers)	1951	6	워싱턴D.C
	搗精業者協會(Rice Miller's Association)	1899	-	워싱턴D.C
	全國肉牛生産者協會(National Cattlemen's Association)	1972	3.2	덴버
	선키스트 감귤 組合(Sunkist Growers, Inc.)	1933	0.5	LA근교
	全國牛乳生産者聯盟(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1916	3	코네티컷

상인 州만도 23개주나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壓力의 강도는 소飼育농가 쪽이 훨씬 더 강하다.

사료곡물의 수출이 늘면 축산물 수출은 줄고 축산물수출이 늘면 사료곡물의 수출시장이 좁아지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사료곡물생산농가는 비교적 조용한데 쇠고기 생산농가들은 아우성이다. 그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곡물생산농가보다 축산물생산 농가가 언제나 매사에 적극적인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축산농가들이 곡물생산농가들보다 단결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농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아이타」장관이 肉牛協會의 지원으로 장관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이타」장관은 쇠고기 수출에 관한 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쇠고기 수출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는 肉牛協會 이외에 지역별로 막강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 마아케팅·보드(marketing board), 협동조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로비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로비활동이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費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肉牛人의 호주머니에서 정치적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는 費用이 조달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수입을 확대하라는 壓力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편 유제품의 경우는 미국보다 유럽쪽이 두려운 존재이다. 이들의 유제품 生産原價도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의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정부가 지급하는 補助金の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날 낙농제품은 先進國조차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 보조비율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물론 보조금이 품목별로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는 좀처럼 판별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해서 일일이 그 금액과 비율을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資材 부문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명확하게 가려내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EC제국의 낙농제품의 경우는 생산자보조율(PSE; Producers Subsidy Equivalent)과 수출보조금을 합하여 제품원가 기준으로 68%에 이르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66%나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높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과 사

〈표 2〉 美國 6大肉牛飼育州의 飼育頭數

단위 : 千頭

州 名	1 9 8 7				1 9 8 8	
	1 월	4 월	7 월	10 월	1 월	4 월
텍 사 스	2,190	2,070	1,950	1,920	2,040	1,960
네브라스카	1,900	1,760	1,460	1,600	1,860	1,860
캔 사 스	1,430	1,375	1,365	1,395	1,395	1,350
콜 로 라 도	935	800	660	715	920	765
아 이 오 와	670	640	500	520	680	675
일 리 노 이	460	450	390	400	440	430

자료 : 미국농업통계국

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생산비를 낮출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속에서 생산된 제품과는 처음부터 경쟁이 될 리가 없다.

결국 이상과 같은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낙농육우인들은 단합할 수 밖에 없다. 시시각각으로 조여 들어오고 있는 開放壓力에 대응해 나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점에서 낙농육우인들은 이제 과거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政治의 力量을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經營의 合理化와 技術향상을 통한 生産性 向上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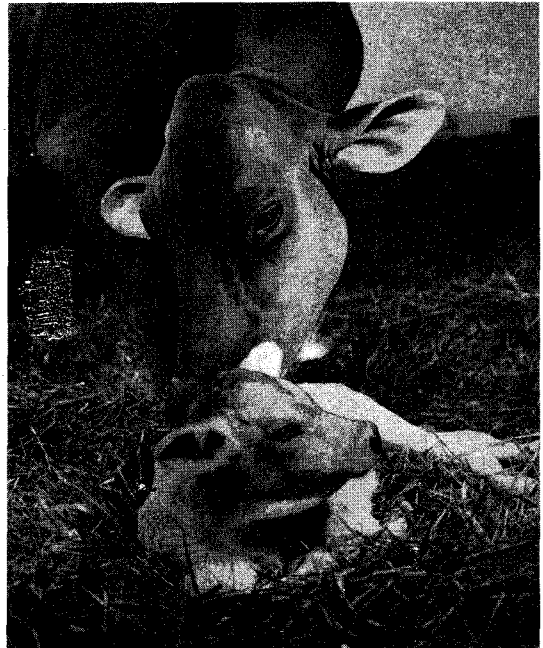
3. 同業者團體의 育成과 積極的인 參與

낙농육우인들이 각자 個別勞動을 통해 자기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버려야 하며, 과거와 같은 個人主義의 시대는 이미 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危機狀況을 맞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대응은 이제 개별활동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同業人들이 단합하여 集團으로 대응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농육우인들은 그들의 同業者團體인 協會나 協同組合을 잘 육성하는데 힘쓰고 동시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酪農肉牛協會와 畜協은 다같이 利益團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양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다르다. 축협은 낙농육우농가의 경제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의 수행이 중심기능인데 반하여 協會는 權益增進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기능의 수행이 중심기능이다.

그러나 양자의 기능은 어느 부분까지는 共有의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협은 경제적 기능수행



이 중심이라 해도 그들 역시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반대로 협회도 경제적 기능을 그에게 주어진 범위안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활동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때문에 양자를 보는 눈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協會와 協同組合은 사업추진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나 相衡關係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리어 양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축협이 못하는 일을 협회가 하고 협회가 못하는 일을 축협이 할 수 있는 까닭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협회는 對政府, 對議會 로비 활동이나 소비자에 대한 弘報活動 등을 도맡아 하고 있고, 協同組合은 경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가 활동해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은 협동조합이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소 다른 환경에 있다. 협회가 정치적 기능수행을 전담하더라도 동업자

단체는 그 어느 것이나 정치적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단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낙농육우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도 너무나 山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농육우농가는 협회도 협동조합도 잘 육성하는데 힘써야 하며 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도 당장 동업자단체가 육우산업과 관련하여 ① 송아지 가격 안정대 실시 ② 쇠고기 가격 안정대 실시 ③ 최소한의 쇠고기 수입 ④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둔갑방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또 낙농의 경우엔 ① 정부의 분유수매 확대, ② 학교우유급식 확대 ③ 가축용 대용유 원료 즉 유장분말의 수입억제 ④ 유제품 수입장구의 일원화 ⑤ 정부차원에서의 유제품 소비홍보 등을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도 낙농육우인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게 실정이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하겠지”하는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成事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아래 협회가 벌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축협도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협회활동을 도와야 한다.

4. 酪農肉牛人들이 해야 할 일

낙농육우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 나가려면 이에 관련된 농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낙농육우인들은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소비자에게 보여야 한다. 최근 낙농육우분야의 불황국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제품과 육류의 소비촉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그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아직도 항생제의 과다사용으로 소비자의 기우를 불러 일으키거나 유제

품의 경우 지나치게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수용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는 소득이 높아지면 量이나 價格보다는 質이나 安定性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명 식품생산회사들이 화란,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로 문제가 된 카제인·나트륨을 3천톤이나 수입했을 때, 소비자단체가 나서서 방사능의 함유여부를 따졌을 때의 경우를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우리의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나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밝히면 소비자는 국내 축산농가의 편에 설 것이다. 소비자들의 협조없이 국내 축산업의 보호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우리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육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우선 육우의 경우는 평균 26개월에 400kg의 소를 길러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600kg의 소를 길러낼 수 있는 품종개량과 사육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 肉質도 좋은 것을 생산해 낼 수 있고 가격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최근 日本에 가보니까 쇠고기의 경우 品質을 향상시켜 높은 값을 받고 있었다. 가장 유명한 쇠고기는 일본소와 젓소를 3次交雜시켜 육질을 고급화시켰다는 「마쓰사카」(松坂) 쇠고기인데, 이는 근당(600g) 우리나라 돈으로 8만5천원에 소매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일등육이 1만8천원 밖에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와같은 쇠고기만 생산해 낸다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길러내는 한 方法이다. 경쟁력은 가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品質로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일본은 「오모미」(近江) 쇠고기 400톤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쇠고기보다 값이 4배나 비싼데도 말이다. 맛이 다른 까닭이다. 그때문에 이것은 미국

육우농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미국의 육우 전문가가 일본에 건너와서 일본 소의 송아지를 수입해 가려 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저절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우고기의 맛은 일본쇠고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 우리의 한우 송아지를 가져다가 肉質을 개선시키고 있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韓牛의 순종마저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샤로레” 소가 대량 수입된 이래 순종이 많이 줄어든 때문일 것이다.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젖소의 경우도 일산 15kg미만의 것은 과감하게 도태해야 한다. 그리고 장차는 20kg미만까지도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유지율도 현재의 전국평균 3.54%를 선진국 수준인 3.8%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같은 우유의 품질개선 노력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낙농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낙농육우산업은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내지 남이 하나까 따라 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과학적 경영과 기술개발만이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길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단위량 생산비를 산출하고 이에 맞게 物財를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사료 투입, 급수, 분뇨처리 등은 가급적 자동화하며 노력비를 줄이고 간접비용의 지출도 최소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농촌은 갈수록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울 조짐으로 自力經營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집단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조직활동에서 얻는 이익은 개별활동에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동업자단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극대이익을 얻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97년부터는 어차피 모든 축산물

도 수입이 개방토록 되어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경영개발을 서둘러 體質化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이상의 활동등도 혼자서는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동업자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5. 맺는말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위기상황은 표면적으로는 國內要因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海外要因이 더 크게 작용된 때문이며, 앞으로는 더욱 그 해외요인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낙농육우인들은 한결같이 동업체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야 한다. 설마, 설마는 금물이다.

낙농육우인들의 단결이란 각 농민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을 結集하여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지원능력을 낙농육우산업에 유도하며 육성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은 이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자가 運命共同體라는 인식을 깊게 한 토대위에서 각자의 自救勢力을 최대한 傾注할때만 가능해진다.

이러한 모든 일에 求心體가 되는 것은 協會이다. 協會는 낙농육우 농가의 權益을 代辨하기 위한 對政府, 對國會 로비활동을 강화하여 낙농육우인들이 안심하고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도도 제고시켜야 한다. 농민은 이익이 있으면 뭉치고, 없으면 흩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은 농민, 협회, 정부가 混然一體가 되어 노력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남을 탓만 해서는 안된다. 서로 밀어주고 협조하고 同參할때만이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